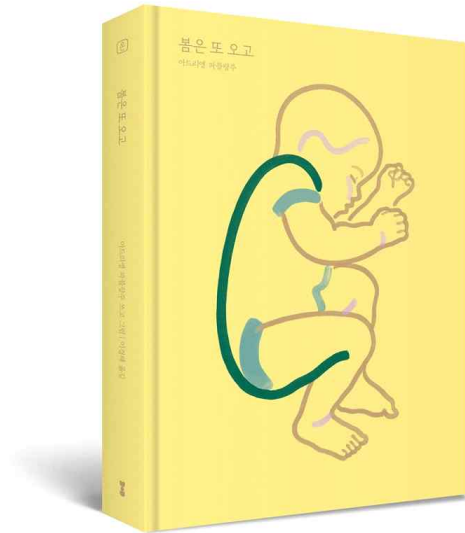


# 봄은 또 오고



조각난 페이지 사이로 커켜이 쌓인 수많은 봄날

바닷가에서 첫 걸음마를 떤 최초의 기억을 지나 어린 시절을 거치고, 어른이 되어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일생이 잔잔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별하지 않지만 한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다. 그렇게 여러 봄을 중첩시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책으로, 책의 일부를 잘라 내고 창을 만들어 텍스트 너머까지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독특한 작품.

아드리앵 파를랑주 지음 / 이경혜 옮김 / 봄별

<b>주 제</b>	삶의 과정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b>권장 차시</b>	10차시
<b>대상 학년</b>	5~6학년
<b>관련 주제어</b>	#일생 #생애 #삶의 순간 #추억 #이미지 #봄 #생의 주기 #긍정적루틴 #북트레일러
<b>교육과정연계</b>	국어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도덕 [6도04-02]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음악 [6음01-05]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미술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b>작성</b>	대구다사초등학교 성윤미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이 책은 70쪽으로 꽤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며, 내지가 보드북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인상은 매우 심플하다. 표지에 제목치고는 매우 작은 글자로 ‘봄은 또 오고’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더 작게 작가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라인으로 그린 아기 그림이 다다. 본문도 표지처럼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왼쪽 페이지에만 그림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흰 바탕에 텍스트만 있다.

작가는 전체적으로 색 사용을 절제했다. 왼쪽 페이지에는 솔리드한 바탕색이 있고 두 가지 색의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다. 바탕색은 노랑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계통으로 번주했고, 그림 라인은 보라색과 초록색만 사용했다. 매우 심플한 선과 색으로 표현했지만 다양한 타공(구멍)과 잘린 부분 등을 통해 잔잔하면서도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은 그림책의 물성을 적극 활용 했다고 할 수 있다. 잘려진 부분과 타공된 구멍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 덕분에 작가가 그 속에 숨겨 둔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 ■ 학습 목표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작품이 가진 인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의미 있는 삶의 시간들을 채워갈 나만의 긍정적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하루하루의 나의 시간과 경험과 이야기가 쌓여 지금의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어른에 비하면 짧다면 짧은 아이들도 삶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기억 속 삶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주고 지탱해준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었던 순간들에 대한 감사와 의미를 되짚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다.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이며 새로운 학교급인 중고등학교와 성인의 삶으로 이어질 삶에 있어서 한 계단을 내딛는 시기다. 지금 여기 이전의 시간, 공간, 관계 속에서의 추억이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의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이었으며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쌓아갈 긍정적 루틴을 만들어 보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창의력 그림카드 등 이미지 카드, 종이 책 만들기 재료, 테블릿 등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 마음 열기 - 제목 보고 표지 상상하기 - 앞표지, 책등 살펴보기	1
읽는 중	- 다양한 방법을 읽기 - 특별한 점 찾기 - 내용 파악하기 - 주인공의 봄 톺아보기	4
읽은 후	- 내 생의 인상 깊은 장면 찾기 - 【선택】인생 책 스토리보드 만들기 - 다양한 방법으로 책 만들기 - 나만의 루틴 만들기	5

### 읽기 전

#### 1. 마음 열기

- '봄' 하면 떠오르는 것 빙고 놀이하기

-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4×4 빙고판에 적고, 모둠 빙고 놀이를 해봅시다.

예)

개나리	황사	진달래	입학식
나들이	벚꽃	소풍	꽃샘추위
새친구	딸기	참외	희망
개구리	아지랑이	춘곤증	새학기

Tip. 빙고판의 크기는 학급의 실태에 따라 달리하면 된다. ‘봄’ 하면 떠오르는 명사로 된 단어 외에 형용사 등도 적게 하여 모둠별로 빙고 놀이로 시작하면 좋다. 이면지를 접어서 칸을 나누어 사용하기를 권한다.

※ 마음 열기 단계와 나만의 표지 만들기 단계 이전까지는 그림책을 노출 시키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어질 활동과 관련하여 함께 읽기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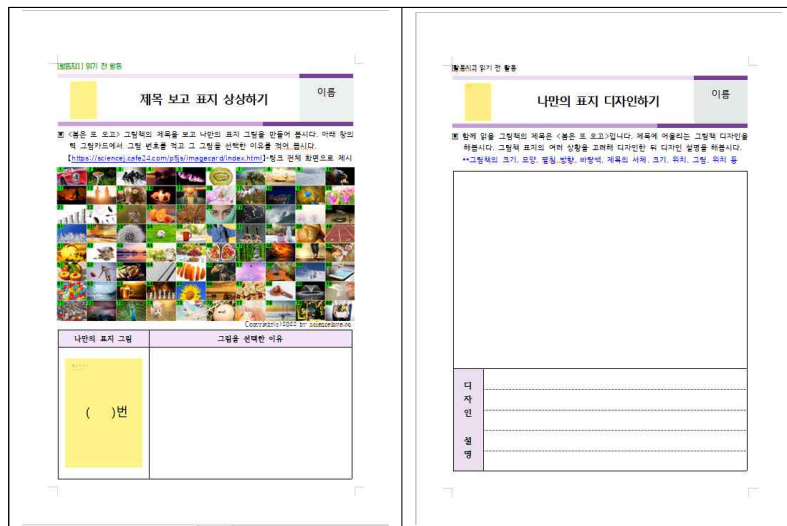
## 2. 제목 보고 표지 상상하기 [활동지 1] [활동지 2]

### ■ 제목에 어울리는 표지 만들기

- 《봄은 또 오고》의 책 제목과 어울릴 그림책 표지를 디자인해 봅시다. 【활동지 1】

- 제목에 어울리는 그림을 (창의력 그림카드)에서 찾아 번호를 넣고, 그 그림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https://sciencej.cafe24.com/p5js/imagecard/index.html>】-링크 전체 화면으로 제시

Tip. (창의력 그림카드)를 활용해도 좋고, 그 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카드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창의력 그림카드)의 경우 활동지 이미지의 크기가 작으므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확대하여 모니터로 보여 주고 선택하게 한다.



예) 16번 - 진달래 꽃 같은 봄에 피는 꽃의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봄이 되어 날아온 철새 같이 느껴진다. 봄에 철새가 날아와 봄을 맞이하며 날아 오고 해마다 또 날아오니 ‘봄은 또 오고’라는 제목과 어울린다.

33번 - 민들레 흫시 그림이 있는데, 민들레 흫시는 흫시가 되어 날아가고 흫시가 날아가 앉은 자리에 또 민들레를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이 되어야 민들레가 피기 때문에 ‘봄은 또 오고’라는 제목과 어울리는 것 같다.

- 나만의 그림책 표지 디자인하여 봅시다. 【활동지 2】

- 표지 디자인 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림책의 크기(세로로 긴 형, 정사각형, 가로로 긴형), 그림책 펼침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등), 큰 그림책, 작은 그림책, 표지의 바탕색, 그림, 사진, 제목의 크기, 서체,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Tip. 나만의 표지 디자인하기 활동으로 【활동지1】, 【활동지2】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할 수도 있다. 학급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활동지를 활용해도 좋고, 실제로 다양한 종이를 주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3. 표지 살펴보기

#### ■ (앞)표지, 책등 살펴보기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예) 개나리 같은 노란 바탕에 아기가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보여요.

《봄은 또 오고》라는 제목과 '아드리앵 파를랑주'라는 작가의 이름이 보여요.

아기 그림이 4가지 색의 선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앞표지에 출판사명이 없어요. 출판사명을 알려 주세요.

제목과 그림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우리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그림책입니다.

- 책등을 살펴봅시다.

예) 맨 위에 <온>이라는 글자가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웁긴 사람은 이경혜이예요.

튄립 같은 꽃 그림으로 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부분 출판사명이 있어요.

출판사명이 '봄'인 것 같아요.

Tip. 뒷표지는 공개하지 않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며, 뒷표지에 있는 출판사명을 확인하게 한다.

## 읽는 중

### 1.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 ■ 다양한 방식으로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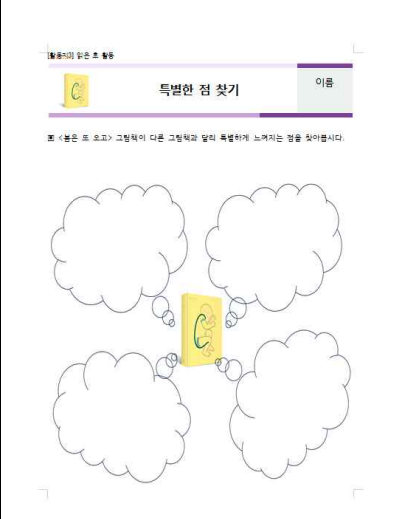
- 교사가 텍스트만 읽어주고, 학생들은 이미지 상상하며 들어보기
- 모동원이 돌아가며 한쪽씩 소리 내어 읽기
- 반 전체 한 장씩 넘겨 가며 한 명씩 소리 내어 돌아가며 읽기
- 마음에 와닿은 장면으로 되돌아가며 읽기 등

Tip. 이 책은 여타의 그림책과 달리 그림책의 물성을 활용한 특별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다. 두께감과 하드보드지로 되어 있는 점이나 타공되어 있는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최소한 모동별로 한 권씩의 책을 복권으로 가지고 직접 넘겨 가며 읽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하며, 함께 읽기 후 시간의 간격을 주고 수업을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온전히 한 장씩 넘겨 가며 책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면 더욱 좋다.

### 2. 특별한 점 찾기

#### ■ <봄은 또 오고> 책의 특별한 점을 찾기[활동지3]

- 이 책이 다른 책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3처럼 그림책의 구조,구성/ 그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특별한 점을 찾아도 좋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표로 찾아도 좋다.</li> <li>- 구성, 구조: 제본의 방식이나 타공된 부분, 파라 텍스트, 표지 등</li> <li>- 그림: 그림면과 그림에 대한 특별한 점</li> <li>- 내용: 글을 위주로 파악된 특별한 점</li> </ul> <p>Tip. 특별한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른 책들과 구분되는 &lt;봄은 또 오고&gt;의 특별한 점이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p>
---	--

예) 그림책 중에 두꺼워요.

표지도 두껍지만 안에 내지도 두꺼운 종이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글이 있어요.

그림책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구멍은 여러 장에 걸쳐 있는 것이 있어요.

구멍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림면의 색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색은 단색이에요.

그림은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 그림이며 단순화한 것 같아요. 그림의 색도 수도 작아요.

나이에 따른 봄의 기억을 모아놓았어요.

장면마다 '○○의 봄'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글의 내용이 일기처럼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마지막만 과거형으로 '없었어'라는 말로 끝나요.

그림책 만들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출판사 이름이 표지와 책등에 없고 뒤표지에 있어요.

- 이 책의 제목이 <봄은 또 오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매 장마다 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의 봄이 주인공에게는 따뜻한 추억이어서 일 것 같아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예) 따뜻함, 포근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시간, 생동하는 생명, 새싹,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추억이 피어나는 느낌 등

매번의 봄이 주인공에게는 따뜻한 추억이어서 일 것 같아요.

- 여러분이 찾은 특별히 점에는 작가의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예) 주인공의 긴 일생을 담아야 했기에 두꺼워졌어요. 한 장면에 한 해의 봄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요.

책에 구멍을 뚫어야 해서 자연스럽게 두꺼워질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이 금방 상할 것 같아서요.

과거의 추억의 장면들을 일기처럼 기억해 두었다가 그 때로 돌아가 그 기억을 꺼내는 것이라 자세한 장면보다는 주인공에게 실루엣처럼 선으로 남아 있는 인상을 나타낸 것이라 선을 이용한 단순한 드로잉으로 그린 것 같아요.

여러 장에 걸쳐 뚫어진 이미지는 그 시간동안 주인공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같아요. 단색으로 된 바탕에 그림을 그린 것은 과거의 기억의 장면을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과 단순화된 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봄이라는 말이 꼭 봄에 있었던 일이라기 보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그림면의 색이 주인공의 기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색인 것 같아요.

Tip. 책의 특별한 점에 대한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찾은 다양한 의미를 수용해 주는 열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독자 비평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작가가 의도가 무엇인지 정답을 맞히고 답을 찾기보다는 각자에게 다가온 의미를 존중해주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 3. 내용 파악하기

#### ■ 질문하며 내용 파악하기

- 주인공은 첫 기억은 몇 살부터 될까요? 그 기억은 무엇인가요?

예) 세 살의 봄, 바다에서 첫걸음마를 떼 일

- 주인공의 몇 살까지의 추억이 담겨있나요? 주인공은 지금 몇 살인가요?

예) 여든다섯 살 (85세)

- 책 속 주인공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과거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왜 그 기억이 오래 남았을까요?

예) 네 살 때 아빠가 도랑가에서 맛보게 해 준 산딸기의 맛에 대한 기억

산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맛이었거나, 지금까지도 딸기를 좋아해서 예상치 못한 작은 열매(산딸기)의 맛이 오래 남은 것 같아요.

시각과 미각, 후각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와의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이거나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첫 걸음마에 대한 기억은 몇 살까지 주인공에게 남아 있었나요?

예) 서른 두 살 (32세)

- 주인공의 여러 기억 중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은 어떤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산딸기를 먹었다는 기억 - 나도 산딸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빠와 따먹어 본 경험이 있어요.

길가에서 뱀(도마뱀)을 만나 도망간 일 - 길에서 뱀을 만나면 정말 놀라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사했던 기억 - 이사를 하면 전학도 가야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겨야 해서 이사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이사하면서 전학 온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와 한 뽀뽀 인사 - 관심있어하는 이성 친구와 뽀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한 것 - 처음 갖게 된 직장은 어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신의 나이와 관련된 처음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처음 유치원에 간 해의 봄,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의 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직업을 바꾸었다면 그 때, 결혼, 자녀 출생 등등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일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봤을 때 - 엄청 충격적인 순간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혼자 떠난 긴 여행 - 혼자 떠난 긴 여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특히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요. 특별히 고생한 일이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결혼 한 해 -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그 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말이에요.

자녀가 태어난 해 - 이것 또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일 것 같아요.

삶에서 겹치는 추억의 순간 - 나의 첫걸음마가 기억에 남는다면 자녀의 첫걸음마, 손주의 첫걸음마, 이책의 산딸기나 뱀, 부모님과 잡은 손, 혼자 간 여행지의 산등성과 나중에 자녀와 함께 온 산등성이 등 이렇게 겹치는 순간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해요.

Tip. 학생들이 이야기와 질문에 따라 꼬리 물기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고 듣고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한다. 가령 산딸기를 먹어 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산딸기를 먹어 본 사람이라든가? 파는 것 말고 야생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먹어 본 경험이라든가? 등의 경험으로 질문을 꼬리 물기 하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된다.

#### ■ 내용 파악 심화하기[활동지 4]

- 책의 내용으로 문제 만들어 친구들에게 문제 내고, 서로의 문제를 맞히는 활동을 해봅시다.
- 문제 만들기과 답안을 만든 후 친구들을 만나면 질문하고 맞힌 친구의 이름을 적어오는 활동을 해봅시다.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은 몇 살에 있었나요? 식의 정확한 내용 확인의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파악 질문 또는 상대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만든 질문을 들고 친구들을 만나 질문하고 맞히기를 해봅시다.

예) 이 책의 각 장의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 ○○(나이)의 봄

이 책의 타공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주인공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시간

주인공은 현재 몇 살일까요? - 최소 85세 이상

주인공이 85세가 될 때까지 매년의 봄이 기록되어 있다. (O, X) 문제 - X

Tip. 질문을 혼자 만들거나 짝과 함께 만들거나 모둠별로 만들거나 하는 상황은 학급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 4. 주인공의 봄 톺아보기

### ■ 오래 이어진 기억 부분의 내용 파악하기[활동지 5]

- 그림책의 타공된 부분의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 활동지4를 작성하면서 주인공의 추억의 봄들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파악해 봅시다.
- 모둠별로 함께 찾으며 활동지를 완성하고 추억이 이어진 기간을 계산하고, 그 추억이 그때까지 이어진 이유를 짐작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예) 첫 걸음마의 추억 - 3살 - 32살 - (29년간) - 첫걸음마에 대한 기억이며 바닷가에서 자신의 가지런한 발에 대한 기억이라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것 같다.

산딸기 먹었던 경험 - 4살 - 85살 - (81년간) - 자연에서 아빠와 산딸기를 발견해 실제로 먹어봤던 경험이라 오랫동안 남았으며 엄청 달콤한 맛이었을 것이다. 85세가 되어 산딸기를 마주하고 있으니 4살 당시의 추억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뱀이라고 착각한 도마뱀에 대한 기억 - 6살 - 36살 - (30년간) - 6살 때 뱀인줄 알았던 도마뱀에 너무 놀랐던 경험이 내내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의 딸과 도마뱀을 보게 되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다.

할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고 호두나무 가지 장식한 경험 - 5살 - 68살 -(63년간) -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무등을 타고 나무를 장식한 기억이 인상적인 장면이었나 이제는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무등 태워 올려준 호두나무를 올려다 보고 있으니 그때가 추억된 것 같다.

마음 맞는 친구와 놀았던 경험 - 8살 - 23살 - (15년간) - 8살 시절 마음맞는 친구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어 그때의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친구를 알아본 것 같다. 친구는 아이의 아빠가 된 것 같고 나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고 가는 중에 복잡한 거리에서 마주쳤다.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여자아이 - 12살 - 13살 - (1년간) -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기에 큰 추억이나 경험, 사건이 없어서인지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바빠서인지 기억이 금방 사라진 것 같다.

뽀뽀 인사의 기억 - 15살 - 24살 - (9년간) - 혼자 여행을 떠나서 외로움과 옛날을 추억하게 된 것 같다.

혼자 여행에서 본 능선의 꼭대기 - 24살 - 44살 - (20년간) - 같은 장소에 이제는 가족과 오게 되면서 그때를 추억하게 된 것 같다. 44살에 꼭대기를 보며 24살에 혼자 왔던 여행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 사이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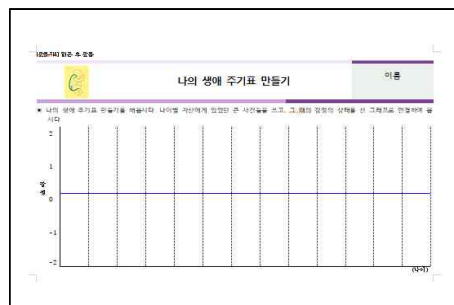
Tip. 모듬 친구들과 함께 한 장면 한 장면 넘겨 가며 주인공의 그 기억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까지도 추측해 보면 좋다. 그 이유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전체 공유해도 좋다.

## 읽은 후

### 1. 내 생의 인상 깊은 장면 찾기

#### ■ 생애 주기표 만들기 【활동지 6】

- 여러분의 나이별 중요 사건을 떠올려 보고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의 나의 주된 감정선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고 나이별 감정에 점을 찍은 후 그 점을 연결하여 꺾은선그래프로 그려봅시다.
- 완성된 생애 주기표는 모듬에서 공유하며 중요 사건을 설명하고 감정 점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예) 1살 - 태어남 -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라 아주 기쁜 2의 감정  
 2살 - 동생이 태어남 - 여동생이 태어나 길 바랬지만 남동생이라 조금은 덜 기쁜 1의 감정  
 3살 - 퇴근하고 온 아빠에게 매달리다가 팔이 빠져서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팔을 끼워줌  
 그때 너무 아파서 -2점의 감정

### ■ 과거로의 시간 여행 명상하기

#### ♣ 시간 여행 가이드 안내문 (참고 자료)

- 우리들의 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 속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봅시다.
- 시간 여행 명상을 위한 배경음악과 가이드 멘트를 차분한 가운데 해보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 봅시다.

### ■ 내 생의 인상 깊었던 장면 찾기 【활동지 7】

- 시간 여행 명상을 통해 찾아본 자신의 인상 깊었던 장면의 나이와 그때 떠오른 이미지, 그 기억을 언제까지 간직했는지 그 추억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 4살 - 장난감 인형 유모차 - 나는 장난감 인형 유모차에 아기 인형을 싣고 어린이에 등원할 때 나도 여동생이 있다면 유모차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 -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나중에 남동생이 생겨서 조금은 실망했지만 동생을 이빠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생각남. - 11살

## 2. 【선택】 인생 책 스토리보드 만들기

### ■ 인생 책 스토리보드 만들기 【활동지 7】

- 내 생의 인상 깊은 장면을 바탕으로 그림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보드 만들기를 해봅시다. 스토리보드는 그림책을 구성하는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나이별로 인상 깊은 장면을 배치하고, 표지 그림으로 선택하고 싶은 장면이나 이미지를 선택해도 좋다. 그림으로 그릴 것인지 사진으로 나타낼 것인지, 바탕색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글은 어떻게 넣을 것인지 등을 활동지에 적어봅시다.

## 3. 【선택】 다양한 방법으로 책 만들기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책을 만들기(선택1)

- 종이 책을 만들기
-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기
- 북트레일러 만들기 등

		
종이책으로 만들기	카드 뉴스로 만들기	북트레일러로 만들기

Tip. 자신이 원하는 책 만들기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태블릿을 이용한 거꾸로 수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영상을 시청하였지만 실제로 책을 만들 때 세심한 부분은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미리 샘플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좋다.

### ■ 종이 책으로 만들기

- 스토리보드【활동지7】를 바탕으로 종이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 만든 책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전시합니다.

Tip.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한다.

### ■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기

- 미리캔버스나 캔바 등을 활용해 카드 뉴스의 형태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인생 책 만들기를 해봅시다.
- 카드 뉴스 만들기 영상을 시청하고 거꾸로 수업의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 만든 책은 모두 함께 공유하는 발표의 시간을 갖습니다.

Tip.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카드 뉴스의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는 학생은 QR로 만드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 북트레이일러 만들기

- 영상의 형태로 된 책을 만들어 봅시다. 자신의 인생 책의 내용을 캔바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 후 배경음악과 음성 넣어 북트레이일러의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 만든 책은 모두 함께 공유하는 발표의 시간을 갖습니다.

## 5. 나만의 루틴 만들기

### ■ 나의 미래를 살아갈 긍정 루틴 만들기 【활동지 9】

- 자신의 하루하루가 쌓아서 미래의 자신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를 위해 어떤 긍정적 루틴으로 하루를 채워가면 좋을지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 만든 루틴은 모두 앞에서 공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공언한 루틴은 더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지킬 자신의 루틴은 꼭 만들어 게시 후 실천하도록 합시다.  
 예) 4살 - 장난감 인형 유모차 - 나는 장난감 인형 유모차에 아기 인형을 싣고 어린이에 등원할 때 나도 여동생이 있다면 유모차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 -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나중에 남동생이 생겨서 조금은 실망했지만 동생을 이빠하는 마음을 간직
- 루틴을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어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나 하교 전 알림장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시간에 학교에서의 긍정적 루틴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Tip. 한 번 정한 루틴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 달 단위로 수정, 보완하면 좋다.